

국회내무위원회에서 「비공개실기
운동조작육성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91년 11월 27일
새벽.



국회전실위원의 91년도 국정감사 첫날의 모습



13대국회의원기자회견국회회의공경.
91년 11월 29일.

'91國政監査

政治部기자 70인이 채점한

13대 국회의원의 성적표

〈新東亞 특별취재반〉

신동원
92-1

13대국회를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정가능성」 「신뢰성」 「연설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해
정치부기자들이 평가한 것을 종합해보면 李海瓚 金元基
趙世衡의원이 전항목에서 10위안에 들고 있어 단연
문보이다. 이들 외에 3개 항목에서 10위안에 든 경우는
盧武鉉 李哲 李鍾賢의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金大中
金光一 金德龍 金潤煥 李根朱 李錫禧 韓光玉의원 등
7명은 2개 항목에서 10위안에 걸렸다.



13대국회가 임기중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쳤다. 법적 임기는 총선을 거쳐 구성될 14대국회 개원 전날까지이지만, 정치적 임기는 끝난 셈이다. 술한 화제와 사건 사고로 점철됐던 13대국회, 과연 어떤 국회였고,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本誌는 13대국회의 참 모습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이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과 평가는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회활동과 의원 개개인의 평가를 위한 자료가 많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매스컴의 영향을 크게 받게 마련이다. 이에 본지는 항상 국회와 정당을 취재대상으로 관찰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의 정치부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와 정당과 의원사무실, 그리고 각종 정치집회에서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정치를 지켜보고 있는 정치부기자들의 평가는 그들이 놓여 있는 현장성으로 인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의회정치에 대한 원론적 접근이나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호오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와 선량들이 4년의 임기동안 국정

큰 흐름과 국민의 살림살이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처신했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국회 및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20개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 국회기자실과 민자당 민주당의 기자실을 방문하여 출입기자 개개인에게 배포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1백여매의 배포된 설문지에 응답한 인원은 70명.

明確 엇갈리는 13대국회

1988년 5월30일 개원한 13대국회는 우리 의정사상 가장 큰 국민의 기대 속에 개원했다. 어느 국회보다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여소야대의 구조가 「한국정치사에서 대타협정치의 확고한 전통을 세우게 된 황금분할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자」(당시 金在淳국회의장의 개원사)는 각오처럼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가져다 준 상처를 딛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불을 세워야 할 국회로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출발한 13대국회는 영욕이 교차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 일으키고, 때로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개원식에 참석한 盧泰愚대통령이 「이제는 숫적 우위에 의한 집권당의 일방적 독주와 강행

이 허용되던 시대도, 소수당의 무조건 반대와 투쟁의 정치가 합리화되던 시대도 지나갔으며, 어느 정당도 독주할 수 없고 어느 정당도 의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까지 날치기와 실력저지가 충돌하는 「有終의醜」를 보였다.

개원 당시의 열기는 첫 정기국회에서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로 이어졌고, 이어 TV로 생방송된 청문회는 민주화된 국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결과는 크게 실통치 않았다고 평가받았지만, 역시 13대국회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권력과 강압에 억눌렸던 지난 시절의 수많은 사건들이 파헤쳐지면서 한편으로 「청문회스타」를 탄생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의 주인공도 드러났다.

청문회정국이 한바탕 바람을 일으킨 뒤의 13대 국회는 「마치 바람이 다 빠진 고무풍선」(陳德奎 이대교수)같은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청문회 하나로 만족하는 것 같았고, 이어 붙여타친 公安정국의 회오리는 의정활동에 검은 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래도 90년까지는 국회의 위세가 있던 때였다. 행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견제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불평을 할 정도였다.

이런 국회의 모습은 91년 1월22일 3당합당으로 근본적인 변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대여당

과 소수야당의 갈등은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몰고갔다. 날치기와 폭행이 의정단상에서 예사로 자행됐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눈초리는 짜늘해지기 시작했다. 민주화를 앞장 서 외치던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날치기통과의 주역으로 변신하는 사태와 의원들의 구태의연한 몸싸움을 목격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도 늘어갔다. 거기에서 의원들의 각종 부정·비리사건(보궐선거 시 후보배수사건, 수서사건, 뇌물외유사건 등)이 터져나와 의정사상 최대 의원구속 기록을 세우면서 의원의 도덕성에 결정적 불신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위풍당당하게 시작했던 13대국회는 변칙국회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을 내렸다. 그 평가는 14대총선에서 국민이 내릴 것이다. 이제 기자들이 보는 13대국회와 국회의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조금도 변하지 않은 정치

상식적 얘기지만, 국회가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살림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국회가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지켜가는 장소이어야 하며 국민들의 삶의 일상성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 것도 이런 사정에

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회는 이러한 성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데 급급한 것 같고, 국민을 지켜주는 기관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정치인 자신의

이해와 정당의 권력경쟁에 더 치중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국민과는 거리가 있는, 어느 의미에서는 국민의사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오늘의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울

바르게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상성을 보여주지 못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올바른 국회의원의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국민들의 욕구를 울

바르게 반영하고 실현하기 보다는私益과 정당의 당리당략, 정치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 확대하는 데 집중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치부기자들의 설문 응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3대 국회에 대하여 평소에 느낀 점」이

설문 — 13대 국회의 의정활동

1. 13대 국회에 대하여 평소에 느끼신 점은 다음 여러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가. 역대국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국회이다.
- 나. 역대국회와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 없다.
- 다. 비교적 의정활동의 수준이 낮은 국회라 할 수 있다.
- 라. 대단히 수준이 낮은 저질국회라고 생각한다.

2. 13대 국회에서 이룩한 중요한 결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점
- 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기여한 점
- 다.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 라. 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 마. 별로 기여한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3. 13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가.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좌우되고 있다.
- 나. 지역주민의 이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 다. 국회의원 자신의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다.
- 라.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
- 마. 국회운영상의 미숙성에 문제가 있다.

4. 13대 국회가 이룩한 중요한 법안의 제정 중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가. 있다면 그 법안은 무엇입니까?
- 나. 별로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
- 다. 기타

5. 13대 국회의 특징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가. 5공청문회
- 나. 여소야대시절의 정부견제활동
- 다. 수서사건 등 비리사건
- 라. 「날치기」 의사 진행
- 마. 기타

6. 13대 국회의원 중에서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는 의원을 5명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7. 13대 국회의원 중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어 앞으로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국회의원을 5명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13대 국회의원 중에서 부정적 인상을 주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5명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例: 非논리적, 인신공격적, 무책임한, 무지스런 발언)

9. 13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상호간에 가장 신뢰받고 있다고 여기는 국회의원을 5명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 13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실득력 있는 명연설가로서 활동한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5명만 적어주시시오.

11.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룩하기 위한 의원의 필요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정치자금
- 나. 의원의 정치적 식견
- 다. 윤리적인 활동
- 라. 정당의 지원

12. 13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구비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70명중 약 절반(34명, 48.6%)이 역대 국회와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경우는 9명에 불과했다. 의정활동이 미약하고 수준 낮거나(15명) 수준이 대단히 낮은 저질국회(12명)라

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인식이 큰 부분(38.6%)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 각 영역에서 눈부실 정도로 발전을 이룩해왔다. 경제성장이 그러하고 문화수준의 향상과 사회발전의 차원에서도 급

속한 변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이 땅의 정치라는 인식이 설문 결과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21세기로 진입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의 주무대라 할 수 있는 국회가 여전히 50년대적 또는 60~70년대의 성격에서 크게 달라짐이 없다는 것

은 불행스런 사태임이 분명하다.

13대국회가 이룩한 중요한 결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39명, 55.7%)의 기자들이 별로 기여함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단지 여소야대의 초기 국

가. 약 90% 이상

나. 약 60, 70% 이상

다. 약 50% 정도

라. 약 30% 정도

마. 약 20% 미만

13. 13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느끼신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가.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회의원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다. 국회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일반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

14. 13대 국회를 보신 후 국회의원의 세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크게 증액해야 한다.

나. 조금 증액되어야 한다.

다.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오히려 감소시켜야 한다.

마. 기타

15. 13대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이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국정에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대부분 원활하게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어느 정도 지역구민의 이해를 반영하였다.

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라. 지역구민의 의견반영이 크게 미흡하였다.

16. 13대 국회의원중 전국구 출신 의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전국구 출신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크게 보여주었다.

나. 전국구 출신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다. 보통으로 생각한다.

라. 전국구 출신 의원의 전문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17. 13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나. 어느 정도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였다.

다. 비판과 견제기능이 미약했다.

라. 비판과 견제기능이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18. 13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준 세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 행정부

나. 당지도부

다. 지역구민

라. 각종 사회단체

마. 언론기관

19. 13대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원내 정당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가. 민정당

나. 평민당

다. 통일민주당

라. 공화당

마. 민자당

바. (통합)민주당

사. 무소속

20. 13대 국회를 보면서 국회에 대하여 느끼신 점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가. 국민의 이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국회는 필요하다.

나.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는 필요하다.

다. 지금과 같아서는 국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라. 기타

회에서 이룩한 활동을 중심으로 민주화에 기여하였다고 대답한 기자가 전체 응답자중에서 두번째로 많은 26명(37.1%)이며, 나머지 극소수의 응답자만이 사회와 경제발전(1명) 및 통일과 국가발전(2명), 그리고 민생치안에 힘썼다(2명)고 말하고 있다. 민주화의 대장정을 내걸고 출범하였던 국회가 기대에 비하여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종착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리당락의 정치행태가 문제

정치부기자들에게 13대국회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상해서 응답하게 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87.1%가 5공청문회(44명)와 여소야대 시절의 행정부 견제활동(17명)을 들고 있다. 그밖에 수서비리사건(1명)과 날치기 의사진행(5명)도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 설문결과 드러나는 것은 13대국회의 하이라이트는 5공청문회라는 사실과 함께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따라 정치의 핵심 터전으로 일했던 시기가 여소야대시절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3당통합 이후부터 국회는 정상적이고 활성화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 주었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비록 한계를 보여주는 국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고 정치의 중심무대로 지속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회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존재(41명, 58.6%)이고, 국민의 이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필요(15명, 21.4%)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무용론, 즉 지금과 같은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겠다고 말한 사람은 11명(15.7%)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국회의 여러가지 한계를 고려해도 대부분의 응답자는 국회를 여전히 필요한 기관이며 이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13대국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런 문제점들을 잉태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정치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부기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오늘의 국회의 한계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58.6%의 응답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락에 좌우되는 정치행위(41명)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진단은 현실정치와 본질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정치를 이같은 상황으로 외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당의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같은 정치이념과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속에 뿌리를 박은 채

국민과 함께 정치를 생각하고 고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결집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치학자는 정당의 성격을 현실정치구조의 생명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당을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정한 이념과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울린 조직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각종 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기존 정당 지지도는 30%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사람들은 정당이 국민들의 일상사와는 무관한 몇몇 특정 정치인들의 조직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정당이 국회에서 정당중심의 당리당락을 추구하다 보니 실제로 국회의 질적 저하와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충원방식의 문제점

국회의 한계를 가져다 준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정치부기자들의 22.9%(16명)가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다른 나라의 일반적 국회의원 충원방식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국회의원들은 네가지 유

형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그 하나는 명예직 인사들이다. 이들은 외국의 대사나 주요은행의 은행장으로 일하다가 국회로 진입하는 등 자기 영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인사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마지막 헌신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경우다.

둘째로 전문직 경험자들이다. 각종 영역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한 사람들로써, 공무원 기자 의사 약사 건축가 등 각자 전문영역에 일가견을 가진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밖에 가까운 이웃의 마음씨 착한 아저씨들이 이웃사람들의 심부름을 대신한다는 기분으로 국회에 나서는 경우다. 이 경우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그 인품과 성정, 그리고 삶의 방법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적인 정치지향인사들을 들 수 있다. 정당에 관여했거나 사회활동에 종사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선출되는 경우이다.

영국의 네가지 유형과 비교한다면 우리 국회는 명예직 인사들의 숫자가 적고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도 미약하며, 이웃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나선 경우도 미약하다. 어느 의미에서는 직업적 정치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 이 점도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金光一의원〉

〈金大中의원〉

〈金德龍의원〉

〈金元基의원〉

그밖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국회 운영에서의 타협과 조정의 전통이 미약하며(5명), 지나치게 지역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3명)고 지적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의 이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2명)고 거론되기도 한다. 결국 오늘과 같은 국회의 한계는 정당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결과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제13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정치자금, 의원의 정치적 식견, 윤리적 활동, 정당의 지원 등이었다.

이같은 물음에 대하여 기자들은 응답자 70명중 58명(82.8%)이 의원들의 정치적 식견을 1순위로 꼽았고, 10명만이 의원 개인의 윤리적 성격을 중요시했다. 정치자금을 1순위로 꼽는 사람은 1명, 정당의 지원에는 아무도 중요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식견을 올바르게 가지고 윤리적

삶의 바탕위에 서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데 기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13대국회에서 통과, 제정된 법안중 중요한 것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들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법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23명). 이밖에 국정감사법(10명)과 기금관리기본법(4명), 국가보안법 국군조직법 방축관계법(각 2명)을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들고 있었다.

13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법이며, 이 법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나아가 민주화의 초석을 놓은 중요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13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부기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구비한 사람이 전체의원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약 50% 정도」(27명), 「약 30% 정도」(18명), 「약 20% 미만」(17명), 「60~70% 정도」(8명).



〈金關煥의원〉

〈金宗勳의원〉

〈羅維培의원〉

〈盧武鉉의원〉

이 응답을 보면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약 반수 정도는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정도로 그 자질과 품위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평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와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의원들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의구심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의원의 자질향상이 관건

「국회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능력의 함양 및 정치적 기여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의 개인적 자질과 수준이 높아야 한다」(26명, 37.1%),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24명, 34.3%), 「국회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1명, 15.7%), 「일반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7명, 10%).

국회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비판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원 세비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는 약간 의외로 나타났다. 즉 적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약 31.4%(22명)에 불과한 반면, 57.1%가 의원세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크게 중액이 13명, 조금 중액이 27명).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8.6%(6명)뿐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곧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정치자금에 필요하고, 그것을 국가가 일정한 형태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의 의미와 그 성격을 찾아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들을 제시하였다. 국회의원과 지역구민과의 관계, 전국구 출신의원에 대한 인식,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영향력 행사자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물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국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비해 국회의원이 실제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과 지역구민과의 관계



〈朴英淑의원〉

〈李相遠의원〉

〈李鍾贊의원〉

〈李廣玉의원〉

를 물은 결과는 「지역구민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67.1%(47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의 하나가 지역구민에 대한 것임을 짐작케 해주는 응답결과였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지역구의 이해와 일치될 때 다음 국회로의 진출이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이해를 보장하고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은 반드시 지역구민의 심부름꾼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엄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출신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이해가 요청되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사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역구민과의 관계는 일종의 보호자-피보호자라는 전통적 사회의 이익고류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나 자신과 우리 집안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고 다른 집안이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관청으로부터도 제약

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처럼 국회의원과 지역구민의 관계가 위계적 체계를 이룩하고 있을 때 그 사회의 합리적 인간관계나 사회적 체계의 유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는 내 편인 사람을 당선시키고 나와 연고가 있는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고주의가 쉽게 뿌리를 내린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지역감정도 이러한 성격의 한 반영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견제와 비판기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 즉 약 반수의 기자들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비교적 행해지고 있다」(33명)고 응답했으나, 나머지는 「견제기능이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13명)거나 견제기능의 미약함(24명)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응답비율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예산·결산에 대한 견제에서부터 일반정책의 견제·감시기능, 그



〈李廣玉의원〉

〈李相遠의원〉

〈李鍾贊의원〉

〈朴英淑의원〉

리고 법제정과정에서의 견제기능 등 대단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견제·감시기능보다는 아직도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범주의 견제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지도부의 영향력 막강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더니 소속정당의 지도부(38명), 언론기관(20명), 행정부(7명), 각종 사회단체(2명)의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소속정당 지도부의 절대적인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은 소속정당의 일사불란한 정책결정에 복종하는 「국회에 대한 정당파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하다. 이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보스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거나, 중요한 국회의 안건이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자유롭게 논의되고 결정되는 여지가 없다면 결국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언론기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응답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비쳐진다. 당 지도부와 언론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중요한 견제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권위와 위상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회에 전국구 출신의원을 두는 취지는 특정분야의 전문가에게 국회진출의 기회를 주는 직능대표적 성격을 가미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전국구제도가 한 때 유신시대의 권위주의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의도만은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3대국회에도 75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전국구 출신의원이 활동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설문결과 전국구 출신의원의 전문성이 크게 드러났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1명인 반면, 50명(71.4%)의 기자가 전문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보여주었다」가 5명, 「보통으로 생각한다」가 13명이었다. 이같은 답변내용은 전국구 제도가 단지 여당의 안정의식을 확보하는 장치로 또는 여야간의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하나의 타협책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실제로 국회의 전문적 기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문회스타」, 의정활동도 우수

정치부기자들은 일상적으로 국회의원을 접촉하면서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가라는 강한 회의론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부기자들이 매진 국회의원의 성적표는 공식·비공식의 취재활동 과정에서 평가한 것은 물론, 기자 개인의 취향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일별해보면 의원 개개인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기자들의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3대국회의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의원을 5명씩 적어달라고 설문하였다. 집계결과 10위

까지의 득표는 다음과 같다.

- ① 李海瓚(무소속·31표)
- ② 盧武鉉(민주·27표)
- ③ 李晶鎔(무소속·20표)
- ④ 李 哲(민주·18표)
- ④ 朴錫武(민주·18표)
- ⑥ 趙世衡(민주·17표)
- ⑦ 金泳鎭(민주·15표)
- ⑧ 金光一(무소속·14표)
- ⑨ 金元基(민주·13표)
- ⑩ 金大中(민주·10표)
- ⑩ 李相洙(민주·10표)

이외에 3표 이상을 획득한 의원들을 득표순으로 열거해보면 金德龍(민자·9표) 金潤煥(민자·8표) 韓光玉(민주·7표) 朴英淑(민자·6표) 李鍾贊(민자·6표) 徐相穆(민자·4표) 咸鍾漢(민자·4표) 金弘桓(민자·3표) 黃秉泰(민자·3표) 朴相千(민주·3표) 朴燦鍾의원(무소속·3표) 등이다.

또 2표를 얻은 의원은 민자당에서는 姜三載 羅維培 南載熙 朴定洙 朴煥太 李仁濟의원, 민주당에서는 金正吉 鄭均桓 趙淳昇 趙洪奎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1명의 기자로부터 13대국회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의원은 민자당의 姜信玉 權憲成 金東英 金東周 金佑錫 金鍾泌 金重權 金顯煜 朴昊秀 朴寬用 서정화(徐廷和의원인지 徐廷華의원인지 不明) 申榮國 吳有邦 李麟求 李鍾根 鄭昌和 趙庚穆의원, 민주당의 金德奎 金泰植 慎順範 柳仁鶴 柳峻相 李基澤 李協 洪英基의원 등이 각각 올랐다. 전체의원 2백99명 중 단 57명(19.0%)만이 인상적인 활동을 한 의원으로 꼽히

고 있는 것이다.

집계결과는 초선의 이해찬의원(40·서울 관악을)이 단연 선두로 부상, 운동권출신의원으로서 제도권정치에 들어가 탁월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10위까지의 의원들을 보면 △무소속의 이해찬 이철용 김광일의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민주당소속이며 △재야 출신의원이 대부분이고(조세형 김대중 김원기의원 제외) △이론바 「청문회스타」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점이 공통점으로 지적된다. 국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의정활동과 관련,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는 구조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요정책이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만 하더라도 사전에 정부·여당간의 당정협의를 거치는 게 관례이므로 여당의원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정활동 베스트10이 야당의원 일색이라는 점은 여당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할 듯하다.

李海瓚의원, 단연 돋보여

의원 개개인에 대한 두번째 평가항목으로 「13대 국회의원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어 앞으로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의원」 5명씩을 적어주도록 제시했다. 10위까지의 득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이해찬(무소속·31표)
- ② 이 철(민주·25표)
- ② 조세형(민주·25표)
- ④ 김원기(민주·20표)
- ④ 노무현(민주·20표)
- ④ 이종찬(민자·20표)
- ⑦ 김광일(무소속·14표)
- ⑧ 김덕용(민자·12표)
- ⑨ 김운환(민자·10표)
- ⑩ 박희태(민자·8표)
- ⑩ 한광옥(민주·8표)

10위권 밖으로는 민주당의 김정길·박석무의원이 7표, 정대철의원이 6표를 각각 얻고 있다. 다음으로 △5표—나눔배 서상목(이상 민자) 이철용(무소속) △4표—이협(민주), 박찬중(무소속) △3표—김덕규 김영진 朴實 이기택 이상수 △2표—강삼재 姜在涉 김운환 박관용 朴泰俊 신영국(이상 민자) 박영숙 梁性佑 조순승 洪起薰(이상 민주) △1표—강신욱 金宗鎬 김중권 김용환 남재희 박경수 辛相佑 서정화 李相河 이인구 이인재 鄭夢準 崔在旭 韓昇洙 함종한 황병태(이상 민자) 김대중 김태식 박상천 辛基夏 유인학 李壽仁 조홍규의원(이상 민주)이었다.

첫번째 설문이 현재까지의 「실적」을 묻은 것이라면 두번째 설문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묻은 것. 여기에서도 이해찬의원이 자질과 가능성을 가진 첫번째 인물로 뽑혔다. 이의원이 이처럼 두가지 설문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청문회 때 보여준 논리적인 질의, 성실한 사전준비노력과 풍부한 자료구사능력이 돋보였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의원은 지난번 광역의회선거시 당의 공천내용에 반발, 신민당을 탈당했으나 야당통합 후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 항목의 설문결과 나타난 특징적인 사항은 10위 이내에 민자당의원 4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의정활동의 실적에서는 야당의원에 비해 돋보이지 않았으나 정치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실적에서는 한표도 얻지 못한 정대철의원이 가능성에서는 6표를 얻어 13위에 오른 점이 이색적이다.

「신뢰성」 1위, 金元基의원

세번째 의원평가항목은 「국회의원 상호간에 가장 신뢰받고 있다고 여기는 의원」을 묻는 것으로서 역시 5명을 적도록 했다. 득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원기(민주·31표)
- ② 김윤환(민자·27표)
- ③ 이종찬(민자·19표)
- ④ 조세형(민자·19표)
- ⑤ 이철(민주·11표)
- ⑥ 이해찬(무소속·11표)
- ⑦ 한광옥(민주·11표)
- ⑧ 김덕용(민자·7표)
- ⑨ 김종호(민자·7표)

⑧ 나용배(민자·7표)

△6표—남재희 조순승 △5표—서상목 정대철 △4표—김종권 노무현 박석무 박영숙 이협 △3표—박태준李慈憲 황병태(이상 민자) 김광일(무소속) 김대중 김태식(이상 민주) △2표—강재섭 金泳三 박정수 朴俊炳 李春九 정창화 趙富英 한승수 함종한(이상 민자) 김덕규 김영진 유인학(이상 민주) 이철용(무소속) △1표—강신옥 金楠 김용환 김종필 金鎭範 박관용 朴浚圭 朴哲彦 박희태 徐錫宰 徐淸源 辛卿植 沈明輔 오한구 李聖浩 李廷武 이종근 李珍雨 정몽준 鄭在文 崔箕善 崔炯佑(이상 민자) 金瑋鎬 金令培 盧承煥 文東煥 이기택 이상수 정군환 홍영기의원(이상 민주).

동료의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인간관계가 좋고 남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뜻도 된다. 또 토론과 타협의 정치에 적응력이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 설문에서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한 김원기 김윤환 이종찬의원들은 모두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을 거쳤거나 현재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이들은 소속정당에서 비교적 온건·합리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여야협상태이블에 자주 참석했거나 참석중인 중진의원으로 손꼽힌다.

이 항목의 득표결과를 보면 앞의 두 항목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해찬·노무현의원들이 5위와 15위에 머

무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 김광일 이철용 김영진 이상수의원 등 재야 출신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처져 모두 10위권 밖에 있다. 그 대신 김종호·나용배의원들이 10위안에 올라 있다.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했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조선의 재야출신의원들이 「의원 상호간의 신뢰성」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상이 흥미롭다. 이는 의원으로서의 경륜이 짧은 데서 비롯되는 약점일 수도 있고, 정치적 엘리트의식으로 동료의원들에게 거리감을 가지게끔 처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金大中의원의 연설능력

네번째는 「가장 설득력있는 명연설가로 활동한 의원」을 역시 5명씩 뽑아 달라는 설문.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① 김대중(민주·34표)
- ② 김광일(무소속·25표)
- ③ 노무현(민주·25표)
- ④ 조세형(민주·18표)
- ⑤ 이해찬(무소속·12표)
- ⑥ 박영숙(민주·8표)
- ⑦ 박찬종(무소속·8표)
- ⑧ 이상수(민주·8표)
- ⑨ 이철용(무소속·8표)
- ⑩ 이종찬(민자·7표)

△5표—김영진 박실 이협(이상 민주) △4표—박관용 박희태 李致浩(이상 민자) 박석무 유준상 이기택 이철한광옥(이상 민주) △3표—김덕용 김

영삼 황병태(이상 민자) △2표—김종필 박준규 함종한 황낙주 신경식 오유방 李道先(이상 민자) 김원기 李謙九 홍영기 조순승 許京萬(이상 민주) △1표—강삼재 강재섭 高世鎭 김진재 김현옥 남재희 신상우 심명보 유한열 정창화 蔡汝植 崔珪圭 洪世基(이상 민자) 김정길 김태식 유인학 정대철 최영근의원(이상 민주) 등.

설득력있는 연설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요, 훌륭한 무기이다. 金大中민주당공동대표가 이 부문에서 1위로 뽑힌 것도 「연설 잘하는 정치인」이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될 듯싶다. 여당의원으로서 이종찬의원이 유일하게 10위안에 들어 있고, 박영숙의원이 홍일점으로 끼어 있는 점도 이채롭다. 또 김광일 노무현 박찬종 이상수의원 등 유야출신들이 4명이나 10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져 보인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4개의 평가항목을 종합해보면 이해찬·김원기 조세형의원 등 3명이 전부문에서 10위안에 들고 있어 돋보인다.

이해찬의원들은 「의정활동」과 「자질 및 가능성」에서 1위를, 「신뢰성」과 「연설능력」에서 각각 5위를 기록했으며, 김원기의원은 「의정활동」 9위, 「자질 및 가능성」 4위, 「신뢰성」 1위, 「연설능력」 2위를 마크했다. 또 조세형의원은 순서대로 6위, 2위, 3위, 4위로 평가받았다.

이들 외에 3개 항목에서 10위안에

든 경우는 노무현 이철 이종찬의원 등 3명이었고, 2개 항목에서 10위안에 평가된 사람은 이철용 김광일 김대중 이상수 김덕용 김윤환 한광옥의원 등 7명이었으며, 한가지 항목에서만 10위안에 뽑힌 사람들은 김영진 김종호 나웅배 박영숙 박찬종 박희태의원 등 6명이었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의원들

본지는 마지막 설문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인상을 준 의원들을 5명씩 거론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논리적이거나 무지스런 발언, 무책임한 언행이나 인신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자주 하는 의원들을 적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모두 77명의 의원들이 기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의원상으로 지적됐다. 민자당 소속의원이 48명, 민주당이 27명, 무소속 2명이었다. 특히 영남출신 민자당의 K의원(은 무려 26명의 응답자로부터 「의원부적격자」로 지목됐다. 의원직사퇴번복소동을 빚었던 민주당의 L의원과, 청문회때 「회장님, 중언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의 K의원, 민자당의 중부권 출신 K의원 등 3명은 14명의 기자로부터 문제의원으로 지목됐다. 또 이른바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원내에서 행한 모든 발언과 입법활동 사회활동 혹은 정당내부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 전문가의 분석작업을 거쳐야 함은 물론, 관계자들의 평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본격작업에 앞서 정치부기자들의 판단에 의거, 평점을 매겨보는 작업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현상에 밀착, 취재에 임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의원들을 평가하기에 적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의원들 각자의 성적표는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13대국회가 사실상 마감됐다. 13대국회와 13대 국회의원들이 남긴 성적을 정치부기자들의 시각을 통해 분석해보면서 무언가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가가 아직은 민주주의의 터전으로 만족할만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아쉬움이 있는 반면 기대감도 없지 않다는 느낌이다. 많은 기자들에 의해 자질과 능력과 활동상을 인정받은 「우수한 선량」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리 국회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필요하며 또 발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도 설문작업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⑤

東亞日報社의 라이프新書

알아야 할 나라 日本.
알고 가야 할 나라 日本.

“일본은 언뜻 한국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보면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강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갔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인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꼼꼼히 사랑하는 저희들이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이 책을 썼습니다.” - 이마에 구미오



한국인을 위한

日本 유학 가이드

今井久美雄 외 共著

“유학·연수·기업체파견·사업·취업·방문·여행 등으로 일본에 가서 생활할 분들, 그리고 일본을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바치는 300권 분량의 日本출판정보”

- 한국에서의 유학준비·출국수속
- 成田공항에서의 입국절차, 東京까지 가는 법
- 東京의 교통체계, 전철 이용안내
- 주거·식사문제는 이렇게 해결!
- 생활시설·의료·사회서비스 이용방법
- 일본인과 사귀는 법, 이점에 주의!
- 일본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 일본의 최신 유학정보, 한국인 유학생 현황
- 그외 일본생활을 위한 필수지식 등 150항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정가 5,000원
F. 781 0821~3